

## 발간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50년사를 펴냈습니다. 편협의 역사는 곧 한국의 언론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서온 언론의 투쟁사이기도 합니다. 반세기에 걸친 그 굴곡 많은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료가 없었습니다. 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정해 수록할 내용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987년 발간된 '신문편집인협회 30년사' 를 그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각종 성명서처럼 그 시대와 언론 상황을 확실히 보여주는 역사성 있는 자료들은 '편협 50년사'에서도 전면 재수록 했습니다. 세미나 주제 논문들은 그 경중을 가려 선별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편협 50년사를 엮으며 우리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에 굴하지 않고 언론 자유를 지켜낸 선배 언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언론계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뿌듯한 광경



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거울을 들어 스스로를 비추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우리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선배들이 힘들여 쌓아 올린 聲價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50년사가 되었는지는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고를 검토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宋忠植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韓錫東 국민일보 논설실장, 尹禎重 문화일보 논설위원, 李穆熙 서울신문 논설위원, 安熙昌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편찬위원들과 집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실무를 도맡아 처리해 주신 崔文基 편집 사무총장, 李健雨 편찬위 간사의 노고가 이 책을 내는 밑거름이 됐음을 밝혀둡니다.

2007년 1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 편찬위원장 李相哲